

‘사찰순례’ 100배 각 능역이면?

# 상세한 정보 · 나만의 원칙을 가져라

**기**업은행 구로서지점 안재은(62·청봉) 거사와 불광출판사 남동화(47) 국장 부부는 요즘 절에 가서 108배를 할 때마다 머리맡에 108개의 사찰 이름이 적혀 있는 도표를 놓는다. 한 배 한 배 할 때마다 도표를 보며 절 이름 하나씩을 외면 서, 그 절에서 본 부처님 얼굴을 떠올린다.

이 부부는 삶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신심을 높이기 위해 108사찰순례를 결심하고 지난 2004년 1년 동안 매주 주말, 연휴, 휴가를 통해 108사찰을 순례했다. 꼬박 1년을 이렇게 다니다보니 불교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신심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순례 전에 해당 사찰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가는 사찰마다 108배도 했다. 절을 제대로 하기 위해 순례 전에 절 수행으로 이름난 청건 스님에게 절하는 법도 배웠다. 정신이 산란할 때면 지각 속에 보관하고 있는 작게 만든 108사찰 도표를 꺼내 들고 절 이름을 외며 순례 당시의 발심을 되새긴다.

**대**구 관오사 108사찰 순례단원들은 평일과 일요일에 떠나는 사찰순례 때 절에서 나누어 준 ‘순례 노트’를 꼭 챙긴다. 자신이 순례한 절에서 그 절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받기 위해서다. 순례단원들은 도장이 하나 둘 늘면서 도장의 의미를 새기며 신심을 다진다. 또 순례 노트에는 순례 사찰에 대한 자료도 수록이 쌓인다. 어떤 신도들은 그 노트를 아이들 교육에 활용하기도 한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울산지부 향운 거사는 인터넷 지부 카페에 지난 6월 둘러봤던 울산의 망해사·청송사·운흥사 순례기를 올려놓았다. 순례기에는 망해사의 창건설화를 보여주는 벽화와 청송사터 삼층석탑, 운흥사지 돌수조와 석축 등 37장의 사진과 함께 이에 대한 설명과 감상이 곁들여져 있다. 누가 보더라도 절의 역사와 문화재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한 번의 사찰순례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한 권의 책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듯이. 일상에 파묻혀 있던 몸과 마음을 꺼내 들고 떠나는 사찰순례. 아름다운 자연, 오랜만에 만나는 부처님, 가보고 싶었던 사찰에 온 기쁨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한다면 의미는 반감된다. 사찰순례는 소풍이나 관광이 아니다. 불교를 공부하고 신심을 다지는 본래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 번쯤은 편안하게 마음먹고 발 길 닿는 사찰에 들르는 낭만과 휴식. 이것이 아니라면 사찰순례는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장 필수적인 것은 사전에 순례 사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인지하는 것이다. 다녀와서는 순례기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 원칙을 정해놓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결심도 필요하다. 가족단위의 여행이 늘고 있는 요즘, 계획적인 사찰순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10월 13-14일 봉정암 순례에서 탑 앞에서 절을 하며 발원을 하고 있는 조계사 신도들.

사진제공-모동신(조계종 포교사)

### ▶ 사전 공부부터 중요

대구 관오사 108사찰순례단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란씨는 “모르고 가는 것과 알고 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며 “신도들끼리 그 절의 문화나 역사적 인물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아무 것도 모른 채 사찰순례를 가는 것은 관광에 가깝다. 가기 전에 순례 사찰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면 실제로 가셔도 보고 듣는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공부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모아 둔 자료는 훌륭한 도반이 될 수 있다.

### ▶ ‘이것만은 지키겠다’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는 원칙을 정하

는 것은 사찰순례를 자신을 다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순례 전 반드시 목욕을 한다거나, 사찰에 가서는 예물을 반드시 한다거나, 한 가지 잘못을 참회한다거나, 108배를 반드시 하겠다는 등의 원칙을 세워놓으면 사찰순례 자체가 곧 수행이 될 수 있다.

### ▶ 순례기를 작성하자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순례기를 작성하는 것은 수행은 물론이고 불교공부에도 큰 도움이 된다. 감상을 모아도 좋고, 문화나 역사나 사찰 특징 등 특정 주제를 정해 순례기를 작성해도 좋다. 많은 사람이 적어도 1년에 5-6번은 성지순례를 하기 때

에 이렇게 몇 년 정리해 놓으면 훌륭한 자산이 될 것이다.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찰순례에서 신도 인솔을 맡고 있는 조계사 김선희 구도부장은 “관심 있는 테마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료를 모아 정리하고, 이것을 신도들끼리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 지역별·테마별 등 연간계획 세워라

요즘에는 가족끼리, 또는 부부끼리 사찰순례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는 연간 계획을 세워 지역별·테마별·사찰 특성별로 진행하면 좋다. 지역(또 단위)를 나눠 순례하고 이를 정리하면 지역별 사

찰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되고, 그 지역의 특징과 불교문화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계절별로 꽃이 좋은 사찰, 숲이 아름다운 사찰, 유서깊은 문화재가 있는 사찰 등 테마별로, 또는 적멸보궁, 기도도량, 선 수행처 등 사찰 특성별로 계획을 세워 순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부산 해원정사 정수현심 보살은 “우리 절에서도 가족이나 부부, 또는 손자와 함께 사찰 순례를 하는 신도들이 많다”며 “사찰순례는 불교를 배울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에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ihan@buddhapia.com

## 일터가 도량입니다

### “관내 주민 모두가 가족이예요”

천안 병천·동면 파출소 유남조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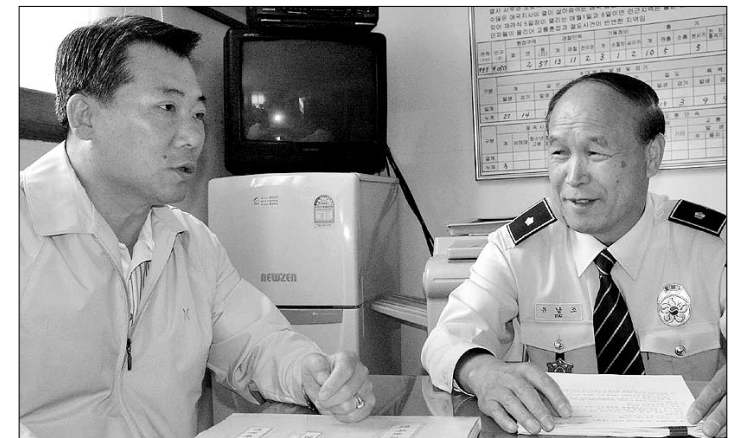
민중의 지팡이 경찰. 하지만 언론을 통해 늘 못매를 맞는 것도 경찰이다. 열 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호된 비판을 받는다.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더 참기 어려운 일. 그래도 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경찰제복이 주는 사명감에서다.

천안 병천·동면 파출소 유남조(54) 소장. 병천면과 동면 2개 면 9천여 주민의 치안을 맡고 있는 유 소장 역시 사명감 하나로 경찰 생활 30년

“그래도 우리 관내는 도시지역보다는 편한 편입니다. 시골이다 보니 강력사건이 별로 없고, 주민들도 순박해서 공권력을 우습게 알지도 않고요. 주민들에게 고맙죠.”

유 소장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과의 유대 관계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와 자율방범대와 한 가족처럼 지내기 위해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눈다.

한동군 생활안전협의회장은 “주민



유남조(사진 오른쪽) 소장은 ‘다가가는 경찰’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 자주 주민들과 대화한다. 유 소장이 한동군 생활안전협의회장과 관내 행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을 보냈다. ‘조직에 누가 되지 않으면, 임무에 충실하자’는 것이 좌우명. ‘경찰도 서비스업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친절해야 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심부름꾼이 돼야죠.’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유 소장이 이런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이 있다. 바로 ‘하심’이다. 직원들에게도 늘 주민에게 친절할 것을 강조하며 ‘공무원 신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한다.

‘친절’과 함께 유 소장이 중요시 여기는 또 한 가지는 ‘범죄예방’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튼튼히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곳보다 방범활동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다보니 직원들은 힘이 들 수밖에 없다. 관할 지역이 넓다보니 순찰 한 번 도는 데 3-4시간 걸린다. 직원들의 수고도 털고 민생을 돌아보기 위해 유 소장은 순찰을 직접 도는 경우도 많다.

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유 소장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깊은 존경을 표하고 있다”며 “유 소장이 불지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유 소장이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사춘형이 즐거하면서부터다. 스님인 사촌형을 만나면서 불교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고, 본격적으로 불교공부를 시작했다. 전일자인 천안 두정지구대에서 근무할 때에는 휴무 때마다 각원사 불교대학을 다니며 공부했고, 천안 경찰서불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작년 7월부터는 회장 소임도 맡았다.

“경찰생활 30년 동안 별다른 흠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후배 경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 소장은 지역주민과 부하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하심하는 경찰’, 유 소장은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글 · 사진·한명우 기자

## 제 7 회 불교전통문화

# 팔 관 회 및 수륙공천도대재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팔관회에 동참하셔서 계를 받아 팔계계를 실천합시다”

八關會 水陸空薦度大齋

10.29(일) ▶ 30(월)

광안리해수욕장

※ 10.29(일) 오후 5시 팔관회대법회 (고산큰스님)

※ 10.30(월) 오후 2시 수륙공천도대재

오후 7시 축하공연 (설운도, 함중하, 장미화 등)

※자비실천 방생법회는 29,30일 이틀간 광안리 해상법당에서 봉행됩니다.  
※팔관회는 FM89.9MHZ 부산불교방송에서 생중계됩니다.

팔관회와 수륙공천도대재 및 방생법회에 관한 동참은 가까운 사찰에 문의바랍니다.

주최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051)867-0501 http://www.bba.or.kr

■ 특별후원 : 문화관광부, 부산광역시 ■ 후원 :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부산불교실업인회, BBS부산불교방송, 불교TV부산방송, 민락회출상가변영회, 민락여출계, 교계 각 언론사